

**SOC사업 민간기업
“법인 부가세 면제를”
(2003. 5. 2)**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법인세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세 감면을 통해 지나치게 비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SOC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자시설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용료는 정부시설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3배이상 비싸 막대한 돈이 투입된 민자시설의 사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SOC 투자이익을 꺾고 있다”며 “법인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도로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40.2km, 6,400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142km, 6,800원)보다 3.3배에 달하며, 부가세(10%)와 법인세(28%)를 면제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15~20%가량 낮아진다. 상의는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민간시설의 가격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체감건설경기 ‘봄날이 없다’
(2003. 5. 7)**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올해들어 4개월째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74.1을 기록, 1월 이후 4개월 연속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6일 밝혔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전달보다 악화됐음을, 그 이상이면 호전됐음을 나타낸다. 건산연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체 규모별로도 대형(76.5), 중견(80.3), 중소기업(64.1) 가릴 것 없이 모두 100에 크게 못미

쳤으며 지역별로도 서울(78.0)과 지방(71.8) 모두 100 미만이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발주부진에다 자재 및 인력수급난에 따른 비용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이라크전쟁의 조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북핵문제와 사스 등 악재에다 내수위축도 심화되고 있어 건설경기는 본격적인 하강곡면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특히 5월 전망 BSI도 88.7로 전달(76.7)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 여전히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밝혔다.

**건교부, 김포·판교 신도시 계획 확정
(2003. 5. 10)**

건설교통부는 9일 지난해 발표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와 파주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포신도시는 주거용지(522만㎡), 상업용지(46만㎡), 첨단업무용지(100만㎡), 특화단지(34만㎡), 지원시설용지(45만㎡), 공공·녹지(839만㎡) 등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 곳에는 단독주택 5천가구(7%)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6만 5,000가구(93%)가 들어선다. 거주인구는 21만평이며 ha당 132명으로 분당(198명), 과천(274명), 평촌(329명)보다 쾌적하게 조성된다. 아울러 공원·녹지비율은 분당(20%), 일산(22%)보다 높은 25%로 확보하고 15만평 규모의 호수공원과 12km에 이르는 김포 대수로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파주신도시는 주거용지(342만㎡), 상업용지(29만㎡), 첨단업무용지(15만㎡), 특화단지(45만㎡), 공공시설용지(215만㎡), 녹지 및 기타용지(262만㎡) 등으로 조성된다. 총 거주인구는 14만 2,000명, ha당 175명으로 분당, 과천, 평촌보다 저밀도로 개발된다. 이 곳에는 농업생태공원 5만평이 조성돼 주말농장과 인공습지, 생태수로(20km)가 들어서게 되며 도심속 농촌체험이 가능한 도농통합형 환경친화도시로 건설된다.

재생골재로 고성능 콘크리트 만든다

(2003. 5. 12)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재생골재로 고강도의 고성능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 신성우교수는 '재생골재를 활용한 고성능콘크리트의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생골재를 천연골재와 적절히 혼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24~27MPa보다 2배 이상의 강도를 갖는 고강도의 고성능 콘크리트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생골재가 구조용이나 콘크리트 2차제품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압축강도의 저하와 시공성에 따른 문제, 건설업계 전반의 인식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왔다. 신교수는 이와 관련, 적절한 재생골재 대체비율은 20~50% 범위이며 특히 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사전준비로 충분한 살수와 함께 고성능 감수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고유동의 작업성과 함께 고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재생골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골재를 활용한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세계 감면혜택을 부여하거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정 비율 재활용의무를 규정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수는 "고성능의 재료개발과 함께 고부가가치 고성능재료의 개발이 시급하며 환경보호와 부존자원보존 측면에서 재생골재 등을 활용한 고성능콘크리트와 같은 재료 개발에도 국가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골재를 중심으로 한 건설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크시멘트 수송차량 파업 철회

(2003. 5. 15)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벌크시멘트 운송 지입차량 13대 차주와 운전사 등 30여

명은 파업 14일째인 15일 오후 4시께 경동화물과 동양상운 등 2개 운송회사와 단체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상운행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중앙지부의 운송비 인상 요율 등이 잠정 합의되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운송회사 등과 자체 합의됨에 따라 이날 오후 파업을 철회했다. 쌍용, 동양 등 2개시멘트 포항영업소와 운송계약을 하고 있는 경동화물과 동양상운의 벌크시멘트 운송차량 차주와 운전사들은 지난 2일부터 남구 송도동 송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둔채 ▲운송료 현금지급 원칙 ▲배차담당 교체 등 7개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이에앞서 경동화물과 동양상운 소속 직영차량 37대(경동화물 26, 동양상운 11대)는 지난 9일부터 정상운행 해 포항지역 건축공사장 등지 시멘트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현재 포항지역 시멘트 1일 물동량은 쌍용시멘트 영업소의 경우 포장시멘트 120톤, 벌크시멘트 3,000여톤이고, 동양시멘트 영업소는 포장시멘트 200톤, 벌크시멘트 2,000여톤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업계, 외국어 배우기 열풍

(2003. 5. 18)

시멘트 업계의 외국어 배우기 열풍이 뜨겁다. 외환위기 후 외국자본이 시멘트 업계에 진출하면서 각종 회의에서 외국어가 쓰이고 업무상 외국회사와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파즈한라시멘트 직원들은 영어 배우기가 한창이다. 2000년 프랑스 라파즈그룹에 인수합병된 후 외국인 사장 부임과 함께 영어회화가 필수가 됐기 때문. 라파즈 본사로의 잦은 출장과 회의, 영어로 보내오는 e메일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사내 영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퇴근시간 후 일주일에 세 번씩 그룹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직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강원도 옥계공장에서도 통신교육, 사이버교육, 전화강의, 영어방송 등 직원들의 열기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단일 최대주주로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경영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쌍 용양회는 일본어 학습 분위기가 뜨겁다. 회사 관계자는 “2001년부터 태평양시멘트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각종 문서나 회의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일본어 학습이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태평양시멘트 관계자들과 접촉이 빈번해진 3년 전부터 무료로 일주일에 세 번씩 퇴근시간을 이용해 일본어 입문반과 초급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매출액·수익성 '파란불' 지속

(2003. 5. 19)

대형 건설업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올해 1/4분기중 영업실적'에 따르면 건설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사의 매출은 총 10조 9,0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도 4,633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5.0% 늘어났다. 따라서 대형건설사의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은 4.24%로 1년전의 4.16%에 비해 0.08%포인트 상승, 수익성구조의 호전을 반영했다. 이번 1/4분기 영업실적은 주택시장에서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과 환경 등 전문부문에서 차별화로 해당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외형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태영의 매출신장세가 작년 동기대비 39.4%의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삼성엔지니어링 37.7%, 대우건설 27.8%, 계룡건설산업 22.9%, LG 건설 20.2% 등의 순이다. 당기 순이익 신장률은 SK 건설이 지난해 해외공사의 미수금 대손상각 등 부실을 크게 털어낸데 힘입어 작년 동기대비 977.7%의 증가율로 가장 높고 이어 대림산업 256.1%, 현대산업개발 62.8%, 고려산업개발 63.6%, 롯데건설 58.2% 등의 순이다. 특히 쌍용건설은 자구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적자에서 100억원 흑자로 반전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건설부문의 순수매출은 현대건설이 1조 1,998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삼성물산

9,687억원, 대우건설 8,839억원, LG 건설 6,766억원, 대림산업 5,374억원 등의 순이다. 업계관계자는 “이 같은 매출 증가세는 주택분양 등 부동산경기 호조가 지속된 데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익성 호전은 원가절감 등 내실경영에다 저금리기조에 따른 차입비용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

(2003. 5. 27)

국내 최대의 석회석이 매장돼 있는 충북 단양군에 석회석 신소재를 연구하기 위한 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오후 충북 단양군청에서는 이진표 군수와 김재홍 군의회 의장, 시멘트회사 관계자 5명, 학계 인사 등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발기인들은 설립 취지문에서 외국의 석회석 산업이 고기능화, 첨단화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양적 대량 생산에 치중하고 있어 새로운 대체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석탄산업과 같이 공동화 현상이 예상된다라고 주장, 21세기 군의 새로운 대체 전략 특화산업으로 석회석 신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산업시설의 집적화와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원료 개발, 석회석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기능화 하는 등의 미래지향적 첨단과학 기술로의 빠른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지문은 이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 단양군의 석회석 신소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발기인들은 곧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을 정식으로 설립, 재단 법인으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과 함께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택난 해결하려면 매년 44만가구 지어야”

(2003. 5. 28)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10년간 매

년 44만여가구의 주택이 건설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택 부족난이 심각한 서울에선 매년 9만 5,000가구를 지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4만 2,000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 관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인구 및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주택수요는 이 기간 동안 438만 6,200가구로 연평균 43만 8,6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주택수요는 2008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 2020년께는 연평균 37만가구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 주택수요는 경기도가 10년간 총 119만 9,000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94만 9,000가구 ▶인천 2만 6,800가구 ▶경북 2만 2,900가구 ▶부산 2만 2,80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국민임대주택 수요는 서울 4만 3,600가구를 포함, 연평균 14만 9,000가구로 전체 주택수요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를 위주로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가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00년, 현재 96.2%,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면 97.7%인 주택보급률은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 현재 95%선에서 2012년 112.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고강도 파일 생산량 확대

(2003. 6. 9)

원심력조합이 분석한 4월 중 고강도파일 출하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업체들이 생산한 고강도 파일은 모두 146만 3,569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06만 6,000여톤에 비해 37.2%가 늘어났다. 수요는 이기간에 모두 148만 4,373톤으로 전년보다 20.2%가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인천송

도 등 수도권지역은 물론 부산과 울산, 충청권등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기초공사에 필요한 파일부족현상이 지속돼 업체별로 증산과 함께 그동안 멈춰섰던 공장도 재가동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증산영향으로 업계가 쌓아놓고 있는 재고는 8만 6,124톤으로 지난 3월에 비해 22%가량 늘어났지만 지난해 4월의 25만 3,000여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업체별 증산체계를 본격 가동하면서 성수기 건설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물량이 부족한 외경 400규격과 450규격의 생산을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450규격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이 이에 대한 생산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일각에서는 450수요가 줄어들 경우 건설현장의 수요가 가장 많은 400규격의 생산량을 다시 늘릴 경우 일시적인 공급과잉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남·강원권 레미콘수요 급증

(2003. 6. 9)

부산과 경남, 울산, 강원지역의 레미콘 출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연합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의 건설공사현장에 공급된 레미콘은 모두 3,990만 4,035m³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696만 8,480m³에 비해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지역은 모두 124만 9,000여 m³를 출하해 전년보다 23.5%의 높은 출하증가율을 보였으며 강원지역도 20.6%가 증가한 164만 6,000여 m³를 출하했다. 또한 경남이 19.0%는 301만 8,000여 m³, 부산이 18.4%가 증가한 256만 4,000여 m³를 기록했고 경북지역도 지난해보다 17.9% 증가한 292만 9,000m³의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의 복구공사가 올들어 본격 추진되면서 공공공사용 레미콘 수요가 큰 폭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영남권에는 올들어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면

서 민간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강원도의 경우 민수가 89만 6,000m³며 관수는 74만 9,000m³로 타 지역에 비해 관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레미콘업계의 가동률(하루 8시간기준)은 부산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42.7%, 경남 38.1%, 대구 37.4%, 울산 36.7% 순이었으며 타지역은 20%대의 가동률을 보였다.

제2연륙교 사장교로 건설

(2003. 6. 13)

인천공항과 송도 신도시 간에 건설될 제2연륙교가 '강합성 사장교'로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주관사인 영국 아멕(AMEC)사 피터 메이슨 회장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인천공항 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합성(鋼合成) 사장교(斜張橋 : Cable-Stayed Bridge)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신도시를 잇는 제2연륙교가 2010년 완공기로 했다. 강합성 사장교는 강철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해 시공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공법으로 교각과 도로를 강철 케이블로 연결한 형태의 다리다. 제2연륙교는 총연장 10.25km(6차로)로 인천공항, 송도 신도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며 2005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0년 이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k) 방식으로 추진되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 채납하고 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 수입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이다.

북한, '상원 석회석광산'에 새 광구 건설

(2003. 6. 14)

평남 상원군에 위치한 상원 석회석광산에 수백만 톤의 석회석을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광구가 건설

돼 조업을 시작했다고 14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새로 건설된 이 광구는 "수백m의 광석운반 수평갱, 궤도 연장길이가 1,000여m에 달하는 광석운반 철길 등 현대적이며 합리적인 운반계통을 갖추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이날 조업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 비서 한성룡, 내각 부총리 조창덕, 조선노동당 중앙위 리봉수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새로운 광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군갱'으로 명명됐다고 평양방송은 덧붙였다. 상원 석회석광산은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에 소속돼 있다.

레미콘운송노조, 경유값 지원 강력 요구

(2003. 6. 16)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경유값 인상에 대한 적정한 보전과 함께 근로자성의 인정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말 대규모 시위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한국건설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묶여 있는 레미콘 운송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성격의 인정과 함께 노동3권의 보장과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같이 레미콘 운송용 경유에 대해서도 가격인상분을 보전하고 운반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유값 보전의 경우 정부가 매년 에너지세를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경유가격에 교통세(29원)와 교육세(4.35원), 주행세(11.18원)가 늘면서 1당 736원(6월 첫째주 기준)에서 791원으로 55원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화물차량과 형평성차원에서 인상분 보전 요구가 제기돼 왔다. 또한 내년에도 또다시 경유값 인상이 예정돼 있어 가격인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업계나 운송노동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운송에 따른 경유값을 실비로 지급하거나 직접 주유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

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업계의 경영실태 파악 등을 위한 단기 용역, 결과를 토대로 8월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운송업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4.5%, 내년 7% 전망

(2003. 6. 17)

리먼브러더스는 거시정책 완화와 유가 하락, 그리고 해외 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리먼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4.5%에 지나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리먼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존 르웰린은 “한국 경제, 특히 2004년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르웰린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가 여러 단계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올 상반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고유가, 신용카드 위기, 그리고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4%에도 못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르웰린은 그러나 한국의 소비자들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복핵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긴장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건설해 자본 유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총리, “SOC투자 확대해 나갈 것”

(2003. 6. 19)

고건 국무총리는 동북아 물류중심 도약의 틀을 마련키 위해 도로,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1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3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헌신한 건설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고 총리는 또 지금도 건설업은 국민경제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해외건설 수주고는 세계 9위에 올라있다고 말하고 21세기 건설업이 한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충실해 달라고 건설인에게 당부했다. 고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립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시공, 환경친화적 시공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총리는 도로와 항만, 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의 도약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최근 편성한 4조 1,700억원의 추경예산중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부는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새로운 지방거점도시와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건설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의, ‘기업 투자 부진 원인은 규제’

(2003. 6. 22)

최근 국내 기업의 투자부진이 불투명한 경기전망보다 진입 제한, 수도권 집중억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장치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100대 기업(회수율 82%)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전략경영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전략상 차질을 입은 적이 있다는 업체 비율이 61.3%에 달했다. 또한 조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8.7% 기업이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철회(27.6%) 또는 보류(21.1%)중이라고 응답했고 이들 중 56%는 특정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상의는 정부규제로 인해 기업 5곳 중 3곳이 경영전략 차질을, 2곳 중 1곳이 투자계획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기업투자 저해의 주원인이 불투명한 경기상황보다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들 때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했다. 기업애로가 가장 큰 부문은 신규사업 진출(26.3%), 설비투자(18.2%), 인력구조조정(17.2%), 자금조달(15.2%), 인수합병(14.1%) 등으로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신규 투자뿐 아니라 사실상 기업경영의 전 부문이 악영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부채비율 200% 등 자금조달상 규제(11.5%),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집중억제 규제(8.5%) 등에 대한 경영전략상 제약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한 경영전략상 애로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기업의 79.0%가 정부의 개혁의지가 없는 한 대책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고 해외이전(11.8%), 사업포기(6.6%), 업종 전환(2.6%)을 고려하는 기업도 21.0%에 달했다. 상의 관계자는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전략적 의사결정이 향후 기업 생존의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전략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과감히 완화,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산업 지속성장

(2003. 6. 23)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등 건설수요가 지속되면서 시멘트업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행정수도건설과 남북경협 등에 따른 추가수요가 예상되면서 양호한 현금흐름과 함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한국신용평가가 내놓은 시멘트산업 평가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공급확충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멘트의 수요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함께 시멘트산업이 진입장벽이

높고 과점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현재의 시장분할구도가 유지되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업황호전에 따라 재무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당분간 설비확장에 따른 재무부담도 적어 양호한 현금창출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장내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정도의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낮아 업계의 재무여력이 향상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예상했다. 또 행정수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추가적인 시멘트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신평은 그러나 국내 경제구조가 선진화되고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물량위주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고로슬래그 미분말 활용 방안으로 레미콘 KS규격이 개정된 것은 시멘트업계의 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부, 목포 신외항 5선석 개발

(2003. 6. 23)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등 4선석이 조기 완공되고 이어 잡화부두 등 5선석이 내년 하반기 이후 착공되는 등 목포신외항의 서남권 물류기지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11년까지 안벽 2.7km, 12선석과 진입로 5.1km, 배후부지 85만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목포신외항과 관련 안벽 240m, 3만톤급 1선석의 양곡부두를 올해 말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다목적부두 3선석을 내년 10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하고 잡화부두 등 안벽 5선석은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해양청은 또 ▲북항양장 및 어선계류장 축조(1,263m, 130억원) ▲완도항 개발 및 정비(물양장 139m, 76억원) ▲5개 연안항 개발(홍도항 방파제 등 29m, 143억원) 등 항만시설을 보강·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